



상고대로 장관 이룬 한라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온 5일 1100도로에서 바라본 한라산에 상고대가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 제주4번확진자 접촉자 74명

사무실 출근·뽕 구입·삼계탕집 식사 등 추가 확인
열흘동안 함께 있었던 지인도 대구에서 확진 판정

코로나19 제주 4번(46세 남성·제주도민) 확진자의 진술이 바뀌면서 자가격리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는 총 8개소이며, 접촉자는 74명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4일 오전까지 확인된 4개소·접촉자 7명에 비해 각각 4개소·접촉자 67명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새롭게 조사된 방문장소는 ▷2월 23일 낮 12시58분 제주시 연동 아라파파 베이커리(종업원 4명 자가격리) ▷2월 23일 오후 7시56분~오후

8시35분 연동 수목원삼계탕(종업원 2명 자가격리·손님 2명 신원확인중) ▷2월 24일 오전 11시48분~낮 12시 8분 노형동 황우정(직원 1명·종업원 2명 자가격리) 등이다. 또한 2월 21일과 24일, 26일, 2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함께 근무한 직원 8명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4번 확진자는 2월 22일과 26일, 27일, 29일에 지인인 B씨(현재 대구에서 코로나19 검사중)의 제주시 연동 소재 집에 체류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4번 확진자가 증상 발현시기를 2월 22일에서 2월 21일로 바꿈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제외됐던 2월 20일 대구발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38명과 승무원 4명도 추가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4번 확진자와 접촉한 74명 중 69명의 신원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5명(수목원삼계탕 손님 2명·서브웨이 연동점 손님 3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확진 당시 4번 확진자의 정신이 기억을 완전히 되살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4일과 5일 진술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4일 처음으로 진행된

진행된 1차 조사 역시 4번 확진자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위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퀵서비스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이며 직접 배달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번 확진자와 제주에서 열흘 동안 함께 지낸 뒤 대구로 떠난 지인 A씨도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A씨의 성별과 나이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체류할 당시 방문했던 제주시 연동 소재 마트와 제주공항 등을 중심으로 접촉자를 찾고 있다. 송은범기자

정부,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1인당 한주 2매 한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

정부가 모든 국민이 공적 마스크를 공평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한주에 2매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총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료·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장 수준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원칙도 마련했다.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해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생일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시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된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 넘게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은 주의 구매수량이 다음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같은 원칙은 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부미현기자

관덕로 ‘차없는 거리’
5월 시범운영 추진

제주시 원도심의 중심인 관덕정 광장 일대 구간이 차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된다. 제주시는 중앙로 4거리에 서문로 4거리까지 관덕로 520m 구간의 차 없는 거리(시민 문화광장)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차없는 거리는 오는 5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는 5월 시범운영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차 없는 거리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윤형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6일 금요일 음 2월 12일 (4월)

기상정보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30%
20%	성 산	30%
20%	고 산	30%
20%	서귀포	30%

주간예보

내일	☁	흐리고 비	8/15℃
모레	☁	흐림	10/15℃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밤부터 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 낮 최고 기온은 10~12℃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해돋이 06:56	달뜨기 14:34
해질 18:35	달지기 04:18
만조 08:46	간조 01:50
20:28	15:1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높음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이후...

교통사고 월 평균 51건→ 47건

작년 8월이후 반납 월 187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으로 면허증 반납이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주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회 한정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고령운전자(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는 2017년 61건, 2018년 98건, 지난해 113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료를 사업이 시작된 8월 기준으로 나눠보면, 8월 이전 운전면허증 반납 건수는 월 평균 29.4건에서 8월 이후에는 186.6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같은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51.5건에서 47.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수가 매해 증가하고 또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과 맞물려 교통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 유지검사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임 성 재
(사진제공 : Getty Image)



PGA 투어 혼다 클래식 대회

2020년 3월 2일 서귀포의 자랑 임성재 선수의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혼다 클래식 대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귀포시민 일동